제주땅 5만㎡ 이상 토지주 1077명

지난해 기준 50억~100억 상당 소유자도 322명
40%가 1000㎡·1억 이상 가져… 무주택자도 많아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에서 5만㎡(약 1만1515평) 이상의 토지를 가진 토지주가 1000명을 넘고,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소유주도 300명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축구장(전용면적 7140㎡, 약 2200평) 7개 크기의 제주지역 토지 5만㎡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는 1077명이다. 이 가운데 50만㎡ 이상의 토지를 가진 소유자만 14명이다.

제주지역 토지주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1000㎡ 이상,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부동산 소유자는 24만837명이며 면적상 10㎡ 미만의 소유자는 3866명(1.6%)이다. 이어 ▷10~50㎡ 미만 3만1120명(12.9%) ▷50~100㎡ 미만 3만4468명(14.3%) ▷100~500㎡ 미만 5만6082명(23.3%) ▷500~1000㎡ 미만 2만1536명(8.9%) ▷1000~5000㎡ 미만 5만5049명(22.9%) ▷5000~1만㎡ 미만 2만711명(8.6%) ▷1만~5만㎡ 미만 1만6928명(7.0%) ▷5만~10만㎡ 미만 764명(0.3%) ▷10만~50만㎡ 미만 299명(0.1%) ▷50만㎡ 이상 14명 등이다.

토지가격별로는 ▷1000만원 미만 2만3137명(9.6%) ▷1000만원~5000만원 미만 6만829명(25.3%) ▷5000만원~1억원 미만 4만5320명(18.8%) ▷1억원~5억원 미만 8만3350명(34.6%) ▷5억원~10억원 미만 1만8546명(7.7%) ▷10억원~50억원 미만 9375명(0.4%) ▷50억원~100억원 미만 216명(0.1%) ▷100억원 이상 64명 등이다.

한편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해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써 2006년과 2012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작년 자료가 다섯번째로 공표됐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85만명 가운데 1767만명(34.1%)가량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SPC그룹 황재복 대표이사(왼쪽), 농협 제주지역본부 변대근 본부장(오른쪽)이 제주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복상생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도·SPC·농협 제주산 농산물 소비촉진 협약

월동채소류 판로 개척 농가소득 증대 기대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고영권 도 정무부지사,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변대근 농협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복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으로 기반으로 제주산 당근, 양배추, 월동무 등 월동채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도는 제주산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SPC그룹은 그룹 내 6392개소 직영·가맹점을 통해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그리고 제주농협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제주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SPC는 제주산 당근을 이용한 케이크, 샌드, 머핀 등을 12월 초부터 출시하고 아울러 양배추, 월동무를 원료로 활용한 샌드위치, 샐러드, 피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영권 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PC그룹, 제주농협과 다양한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해 제주산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함께 제주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도모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대근 본부장은 "제주산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주농협도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복 대표이사는 "좋은 농산물을 활용해 맛있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사랑받고 아울러 제주 농가와 상생하는 SPC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 제주지역 공론화 필요"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하고 제주 Smart e-Valley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광만)와 한국엔지니어연합회 제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7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이밸리포럼)'이 오는 20일 제주 호텔난타에서 열린다.

제주대 현명택 기계공학과 교수가 '제주도의 천혜 에너지 자원인 수열에너지'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현 교수는 풍력 등 전력 부문에 치중한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지적하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산형 에너지 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제주 온배수 수열원 활용 시설농가 냉난방 에너지 활용 사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열에너지 이용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 교수는 지하수열 활용에 앞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천공방법 등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제주 스마트 이밸리포럼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제주의 Carbon Free Island 구현을 위한 논의 등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장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포럼 실황은 20일 오전 7시 실시간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 채널로 중계된다. 백금탁기자

게이트볼 즐기는 시민들 17일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제주복합체육관이 8개월 만에 개방되자 사전 예약한 동호인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한다

56억 징수 목표… 재산 압류 등 강력 제재 병행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총력전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 체납액인 경우 체납발생액의 65%, 지난년도 체납액은 체납발생액의 39% 이상이다. 11월 6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 171억원 가운데 56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 납세자들에게 체납고지서 8만여 건을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읍·면·동과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효율을 기할 계획이다.

체납정리 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공매 처분은 물론 공공기관 정보등록·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한다. 더불어 신탁재산 사후정산금을 압류하고, 증권계좌 ·법원 공탁금 압류 등도 적극 활용한다. 서귀포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는 55명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무재산·시효기간 소멸·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요건 충족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농업용 전기차 보급 위해 제주 최초 5자 업무협약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는 최근 제주 최초로 농업용 전기차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해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대학교 스마트그리드인력양성사업단, 대지정공(주), (주)대경엔지니어링, 신성이엔지가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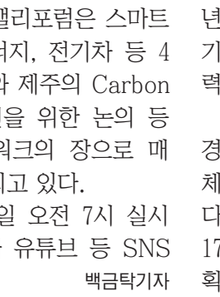
업무협약은 농업용 전기차 개발 및 생산·보급, 인프라 관련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이뤄졌다. 신성이엔지는 배터리, 대지정공(주)는 차량 바디를 제작해 제주기업인 (주)대경엔지니어링으로 공급해 생산·보급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농업용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면 V2G(Vehicle To Grid) 연계로 발전출력제약에 활용할 예정이고, 제주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주의 지질은 대부분 암반으로 구성돼 귤밭과 같은 과수농가가 많아 트랙터보다는 다용도 농기계 사용이 유리하다. 또한 전기농기계는 주유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로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게 되므로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백금탁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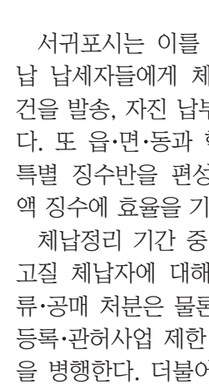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코코리 입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희토류가 들어있는 → "이노페스"탄생

이노페스 성분

원 료 명	효 과
희 토 류	염류중화 · 토양개량 · 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 식 산	유기물 대체 · 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 · 백합추출물	토양해충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 징
☆가스피해가 없다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희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 · 감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